

○ 공연 내용

순서	곡 명	내 용
1	봄이 오면 + Dindi	한국 가곡 「봄이 오면」과 브라질 보사노바의 명곡 Dindi 를 함께 엮어 선보이는 무대로 따뜻한 봄의 정서와 서정적인 멜로디를 중심으로, 한국 가곡의 섬세한 감성과 브라질 음악 특유의 부드러운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. 익숙한 계절의 감성을 재즈 화성으로 풀어내며 공연의 문을 여는 곡입니다.
2	한계령 + I will wait for you	가곡 「한계령」과 프랑스 영화 음악의 대표곡인 I Will Wait for You 를 연결하여 구성한 무대입니다.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공통된 정서를 중심으로, 한국적인 서정성과 프랑스 영화 음악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집니다. 잔잔하지만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곡으로, 공연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.
3	마중 + Danny Boy	한국 가곡 「마중」과 아일랜드 민요 Danny Boy 를 함께 구성한 무대입니다. 사람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중심으로,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. 담백한 선율 속에서 인간적인 따뜻함과 깊은 울림을 전하는 곡입니다.
4	먼 후일 (시: 김소월 / 곡: 김희나)	김소월 시인의 대표 시 「먼 후일」에 새로운 선율을 더해 재즈 창작곡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. 시의 일부를 짧게 낭독한 뒤 음악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구성되며, 담담하지만 깊은 이별의 정서를 음악적으로 풀어냅니다. 한국 시 특유의 여백과 정서를 재즈 화성과 즉흥적인 표현 안에 담아낸 창작곡입니다.
5	못 잊어 (시: 김소월 / 곡: 김희나)	김소월 시인의 「못 잊어」를 바탕으로 한 창작곡으로, 쉽게 잊히지 않는 마음과 오래 남는 그리움을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. 단순한 가곡 형식이 아니라 재즈적 해석과 즉흥성을 더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켰으며, 시와 음악이 하나의 감정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됩니다.
6	얼굴	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가곡 「얼굴」을 재즈 편곡으로 선보이는 무대입니다. 익숙한 멜로디 속에 재즈 특유의 화성과 리듬을 더하여 새로운 분위기로 재해석하며, 세대를 넘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서를 전달합니다.
7	그 집 앞	한국 가곡 「그 집 앞」을 보다 서정적이고 현대적인 재즈 감성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.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가사를 중심으로, 담백한 연주와 보컬 표현을 통해 익숙한 노래를 새로운 감각으로 들려줍니다.
8	과수원길 + That's All	동요이자 가곡으로 친숙한 「과수원길」과 재즈 스탠다드 That's All 을 연결하여 구성한 무대입니다. 편안하고 따뜻한 정서를 중심으로, 익숙한 한국 멜로디와 클래식 재즈 스탠다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. 세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근한 프로그램입니다.
9	Sway	멕시코 곡 「¿Quién será?」를 원곡으로 한 Sway는 라틴 특유의 리듬감과 재즈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지는 곡입니다. 반복되는 리듬 위로 흐르는 낭만적인 멜로디는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국적인 정서를 만들어냅니다. 익숙한 멜로디 안에서도 라틴 음악만의 뜨거운 에너지와 재즈의 세련된 감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.

※공연 순서 및 내용 등 변경 될 수 있습니다.